2022년 / 9월 5주차

연구원 회원 소식

한승훈 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임용

지난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한 후 오르 8월까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하던 우리 연구원 한승훈 회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종교사와 민속종교가 주요 연구 분야인 한승훈 회원은 그간 다양한 전공 연구 활동뿐 아니라 한겨레 오피니언 필자로도 활약하는 등 종교학 분야에 소장학자로 큰 기대를 받고 여러 연구업적을 쌓고 있습니다. 연구자로 후학 양성의 길에 나선 한승훈 회원의 앞날에 건투를 기원합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레판토의 외팔이 태어나다 – 1547. 9. 29

근대 소설의 선구 <돈 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돈 키호테>라는 소설 제목을 들어보지 못한 이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소설은 근대 소설의 선구가 되었으며 문장은 스페인 최고의 사실체로 평가되고 진정으로 '인간'을 그린 최고이자 최고의 소설로 읽히고 있다. 이 소설은 2002년 노벨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유명 작가 100인에게 역사상 최고의 책을 선정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쩍 마른 말 로시난테를 타고 세상을 향해 달려드는 기사(騎士) 돈 키호테를 세상에 만들어 낸 사람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이다. 그는 1547년 9월 29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인근에 위치한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지만 먼 친척의 이름인 사아베드라를 덧붙여 사용해 오늘날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생에 걸쳐 소설 뿐 아니라 시와 희곡 등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가 작가를 지망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불우한 성장과정을 극복하기 군인이 되었던 세르반테스는 1569년, 교황의 사절로 스페인을 방문한 추기경의 비서가 되어 이탈리아로 건너간 후 베네치아에서 그곳에 주둔한 스페인군대에 자원입대했다. 1571년 10월 7일 베네치아와 스페인의 연합군이 투르크 군과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레판토 해전이 벌어졌다. 세르반테스는 전투 중에 가슴과 왼손에 총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5년이나 더 군인으로 복무하며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다. 28세 때인 1575년, 세르반테스는 드디어 퇴역을 결심하고 고향 에스파냐로 향한다. 그런데 출항 엿새 만에 그가 탄 배는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고, 세르반테스는 졸지에 해적의 포로가 되어 알제리로 끌려간다. 이후 5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37세였던 1584년이었다.

귀국 이듬해인 1585년에 발표된 첫 번째 소설 <라 갈라테아>는 호평을 받았지만 큰 명성을 얻진 못했다. 이후 말단 관리가 된 세르반테스는 이후 10여 년간 무적함대의 물자 조달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 징수관으로 일했다. 그는 여러 번 비리 혐의로 고발당해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중 한 번인 1597년 가을에 세비야에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 <돈 키호테>를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르반테스가 57세 때인 1605년에 출간된 <돈 키호테>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생활고로 인해 출판업자에게 판권을 넘겨버린 까닭에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했다. 말년에는 신앙생활에 전념해서 아예 수도회에 들어갔고 마침내 수도사로 정식 서원을 했을 즈음, 그는 이미 수종증이 악화되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1616년 4월 23일, 세르반테스는 69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같은 날 당대의 또 다른 대작가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떴다.